

[보도자료] 박명수, '위대한 가이드3' 노련한 예능감부터 '무한도전 Run'서 '냉면' 무대까지 과거와 현재 잇는 독보적 예능 품 이 어간다!

2026. 8. 13.



박명수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 방송화면캡처)

박명수가 MBC에브리원 예능 <위대한 가이드3>를 통해 노련한 예능 품을 발휘 중인 가운데, 오는 9월 '2026 무한도전 Run in 경주'에서 제시카와 17년 만에 '명카드라이브'로 재결합을 예고하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예능 존재감을 완성한다.

지난 11일(화) 방송된 <위대한 가이드3>에서는 모로코 여행에 나선 박명수의 활약이 펼쳐졌다. 박명수는 멤버들을 챙기는 만형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도, 곳곳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애드리브를 던지며 '현실 형제' 같은 케미를 이끌었다. 낯선 현지인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고 새로운 상황에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등 여전히 몸을 사리지 않는 행동력으로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길거리 게임에서는 평소 꼼꼼한 모습과 달리 집념과 승부가 기질을 드러내며 예능감을 폭발시켰다. 승부가 거둬질수록 누구보다 게임에 빠져드는 모습부터 뜻밖의 굴욕을 맛보는 순간까지, 현역 예능인으로서 예측불허의 재미를 만들어내며 매서운 감각을 증명했다.

진행자로서의 노련미도 빛났다. 모로코인 오마르가 편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답변을 끌어내는가 하면, 토크가 처지려는 순간에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분위기를 환기하며 흐름을 잡았다. 여행지에서는 직접 부딪히며 웃음을 만들고, 스튜디오에

서는 전체 토크를 리드하며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처럼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웃음을 전하는 박명수의 행보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팬들과의 소통으로도 이어진다. 박명수는 오는 9월 19일(토) 경주에서 열리는 '2026 무한도전 Run in 경주'에서 <무한도전> 팬들과 만난다. 지난 6월 서울 상암 레이스의 열기를 이어 또 한 번 '무도키즈'들과 직접 호흡하며 뜻깊은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2026 무한도전 Run in 경주' 특별 공연 라인업 이미지.

또한 이번 레이스에서는 <무한도전>의 향수를 자극할 특별 공연이 펼쳐져 기대를 모은다. 스컬, 하하, 자이언티, 윤미래, 타이거 JK, 이적 등 화려한 라인업이 공개된 가운데, 박명수는 이날 EDM 디제잉을 비롯해 제시카와 17년 만에 '명카드라이브'로 재결합, 당시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로 뜨거운 신드롬을 일으켰던 히트곡 '냉면' 무대를 선보인다.

<위대한 가이드3>를 지탱하는 든든한 만형부터 17년 만에 성사된 명카드라이브의 재결합까지 과거의 추억에 그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박명수의 독보적인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